

#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조속한 구축 필요”

### 김승수 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 참여해 건의·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등 협조 요청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승수 시장은 14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여해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등의 안건을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김천간 동·서축 철도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지역과 전주·전북지역을 잇는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은 호남과 영남과의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륙에서 새만금까지 물류권을 구축해 국가적인 철도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철도수요에 대응하는 교통



14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김승수 시장은 전주-김천간 동·서축 철도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로 꼽힌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인력 및 운영비용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중보건 의사나 군의관, 의과대학 재학생 등

의사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예방접종센터 접수, 예약, 안내 등의 업무와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미안마 민주화

지지 모금운동 및 바자회 추진, 미안마 유학생 일자리 지원 등 전주시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대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4월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 지역 10개 도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 도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 기초단체장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19대 협의회 임원진이 선출됐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 ▲중앙투자심사 관련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등 10개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김승수 시장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비교해 차별받아 왔던 전주시가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와 함께 신속하고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온두레공동체·협동조합 제품 온라인 판매

### 21~23일 9개 단체와 '전주 야호 라이브 커머스' 운영

전주지역 온두레공동체와 협동조합 등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판매자로 선을 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세라누리 등 9개 단체와 함께 '2021 전주 야호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 야호 라이브 커머스는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 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온두레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진행된다.

참여단체로는 ▲기린이모 ▲삼천도시대학협의회 ▲수화담 ▲예담공예 ▲유한림인 우리들냉식품 ▲착한공작소 협동조합 ▲(유)플로에듀 ▲데일리그린 ▲세라누리 등으로, 할բ밤, 비빔밥 등 음식에서부터 티코스터와 브로치, 액자 등 인테리어 소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된다. 이 단체들은 쇼호스트와 사전 컨설팅, 홍보를 위한 사전 바이럴 영상 촬영 등을 진행한 뒤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참여한다.

21일에는 먹거리, 22일에는 공예, 23일에는 인테리어소품을 주제로 열린 예정으로, 매일 오후 7~8시, 1시간 동안 3개 단체(단체 당



15~20분 내외의 라이브 커머스가 펼쳐진다.

양평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라이브 커머스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친 셀러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온두레공동체와 사회적기업들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어린이창의체험관 뒤편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 10월까지 총사업비 2억원 투입 놀이체험·관찰체험 시설 등 설치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연계해 아이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생긴다. <관련기사 5면>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1가 산1-1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동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면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곳이다. 현재 인후공원

과 혁신도시, 학산, 서곡지구 등 4곳에 유아숲체험원이 있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뒤편에 들어서는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덕진공원, 동물원과 연계한 놀이코스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중국단풍과 느티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한 수림대가 있어 생태교육 효과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 조성되는 유아숲체험원은 ▲아

이들이 뛰놀며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네트놀이와 통나무 균형잡기, 나무그네 등 놀이체험 시설 ▲직접 가꾸며 관찰할 수 있는 텃밭 등 관찰 체험 시설 ▲순대피소 등으로 채워진다. 방향 및 시설 안내판 등도 설치된다.

시는 이곳에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일반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유아숲체험관이 새롭게 조성되면, 인근의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과 동물원, 덕진공원 등과 연계해 아이들

을 위한 새로운 놀이코스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후공원과 혁신도시, 학산 등 3곳의 유아숲체험원에는 지난해 총 1만5,866명의 이용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 아이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 수 있는 생태숲놀이터, 책과 함께 성장하는 책놀이터, 상상력을 길러주는 예술놀이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추진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SNS 캠페인을 발인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신속한 안착을 목적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 영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이 비발달적인 실업 상황에서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고용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예술인들의 절반 정도만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고용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포스터나 책자, 피켓 등을 들고 사진 찍은 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 해시태그(#문화예술용역계약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의가치 #전주와같이 등)와 함께 게재하고 캠페



인 참여자 3인을 지목하면 지목받은 3인이 다른 3인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예술인 사회연대협의회 회의를 2차례 열고, 자체 포스터 제작 등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 포스터는 문화예술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됐다. /김윤상 기자

## 전주월드컵골프장 매주 월요일 주 1회 예약으로 예약방식 변경

“주일에 1번만 편리하게! 매주 월요일은 전주월드컵골프장 예약하는 날입니다.” 이제 매일 예약하는 불편에서 벗어나 매주 월요일에 한 번 예약으로 전주월드컵골프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매일 하루씩 예약을 하는 종전 전주월드컵골프장 예약방식을 매주 월요일 10시에 2주 후 평일(월요일~금요일) 분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말 예약은 기존처럼 오전 11시에 별도로 접수한다. 2주 전 사전예약제

방식은 동일하며 골프장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뀐 예약방식은 오는 21일 월요일 예약접수부터 적용된다.

공단은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예약방식을 이같이 변경했다.

현재 월드컵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

에 따른 행정명령 1.5단계에 맞춰 수용인원 축소, 탈의실과 샤워실 미개방, 의무조인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로 정상 운영 중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